

## 溫 州 誌

[溫州誌]는 옛 溫陽郡의 邑誌로서, 現在 溫陽地方의 古文獻 收藏家들이나 保有하고 있는 稀貴本인데, 그것도 筆寫本으로 傳하여 오고 있으며, 序文도 없고, 編纂年代도 전혀 記錄되어 있지 않다. 다만, [邑規]條의 末尾에 [咸豐 二年 六月 十二日 傳書筆執 鄭錫祚]라는 年代와 人名이 明示되어 있음을 본다면, 이 [溫州誌]는 哲宗 3年(1852年)以後에 編纂되었음이 明確하다. 그리고 [戶口]條에 [己酉式](憲宗 15年, 1849年), [辛酉式](哲宗 12年, 1861年) [甲子式](高宗 1年, 1864年) 등의 記錄으로 본다면, 이 [溫州誌]는 興宣大院君이 執權하고 있던 高宗初에 編纂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距今 120餘年前의 文獻이다.

編纂者 또한 누구인지 未詳이나, 文章의 敘述속에 吏讀의 表記가 頻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서, 儒生의 編纂은 아닌 듯하고, 溫陽郡守 幕下에서 일하던 吏屬(衙前)들이 編纂한 것이라고 推測된다. 그리고 溫陽郡 吏屬들이 編纂한 [溫州誌]가 儒生들의 家門에 傳하여져서 私的으로 增補한 痕蹟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例를 들면 楊州趙氏 門中の 歷代名儒들의 史蹟과 그 文章이 顯著하게 많은 紙面을 獨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溫州誌]의 特色을 찾는다면, 李氏朝鮮 末期인 最近世時代의 地方行政 制度나 行政例規 등이 比較的 昭詳하다는 點이다. 이것은 溫陽郡守 幕下에서 行政實務를 直接 擔當하고 있던 吏屬들이 編纂했기 때문일 것이며, 反面에 編輯體制는 疎漏하나, 開化期 以前の 地方行政制度를 考察하는 데에는 매우 所重한 資料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溫州誌는 藝術的 價値보다는 制度史的 價値가 더 높다고 하겠다.

특히 溫陽은 忠淸左道의 大都會이며 湖西地方의 要地로서 溫泉이 有名하여 歷代 王室의 保護를 받은 고장이다. 英祖 26年(1750年)의 溫幸을 迎接하기 爲한 各種 差員의 業務分掌 이라든가, 또는 3年마다 施行되는 式年의 科擧에 있어서 3式(9年)마다 한 차례의 式年武科는 반드시 溫陽에서 施行하였는데, 이 武科의 施行節次에 關한 記錄等은 當時의 制度를 詳考하는 데에 좋은 資料가 된다.